

# 인구·가족 구조에 따라 주택도 변화한다

글 | 윤정숙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지난 한 해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부도 이에 대응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 변화에 민감한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가족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쳐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거는 개인과 가족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미래 사회의 인구 구조와 가족 형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근대화 이전 우리나라는 한 곳에 정착해 삶을 영위하는 농업사회로 인력이 필요한 대가족의 형태였으며, 주거 또한 일과 거주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적합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은 가족의 삶의 장소이면서 그 가문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접어들자 근로자들이 직장을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때의 '집'은 가족 간의 생활만 이뤄지는 거주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대가족·확대가족이었던 가족의 형태도 핵가족으로 변모하면서 1960~70년대 아파트는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 생활의 표본이 되었다. 현재 국민주택 규모 역시 이에 근거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아파트의 유형과 평면개발은 다양해지고 기술의 개발도 매우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이 이미 달라지고 있는 인구·가족 구조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개발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부터 매년 10년 주기로 가족 구성 형태와 평균 가구 원수가 변하고 있다. 1세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주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단독 가구는 1세대 가구의 증가 비율을 상회해 증가하고 있다. 평균 가구원 수도 1970년 5.2인에서 2000년에는 3.1인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령화·소가족화·독신 세대가 등장하고, 또한 장남·장녀의 시대를 맞이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주택 환

경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주택 시장은 더욱 세분화돼야 할 것이며, 주택의 변화도 매우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가족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 변화와 맞물려서 주택의 수요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1993년에 준공해 1994년에 입주자가 시작된 일본의 NEXT'21은 인구·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연구 개발된 미래형 실험 주택이다.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른 7개의 평면형이 제안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9개의 평면형이 제안된 도심형 공동주택이다. 물론 이 주택은 세계적인 관심사인 '환경 보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키워드로 해 친환경 주거 기술, 지역적 주거문화 기술, 다양한 거주자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다.

이 주택은 1차로 5년 거주 후 평가보고서를 내고 2000년도부터 2차 입주 실험을 했다. NEXT'21의 특징은 기존의 실험 주택과 달리 '인간의 삶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삶의 주체가 되는 다양한 가족의 주거 요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성을 극대화하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해 적용했으며, 소자녀·고령사회에 대응한 주택계획을 제안하는 등 하드웨어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다양성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기술을 함께 고려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소자녀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족의 전 생애주기 중에서 부부만 생활하는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어 주거 공간에 대한 개조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의 주거도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살고 싶은 집'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